

##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 양계산물의 최종 선택자는 소비자이다

서 정 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기술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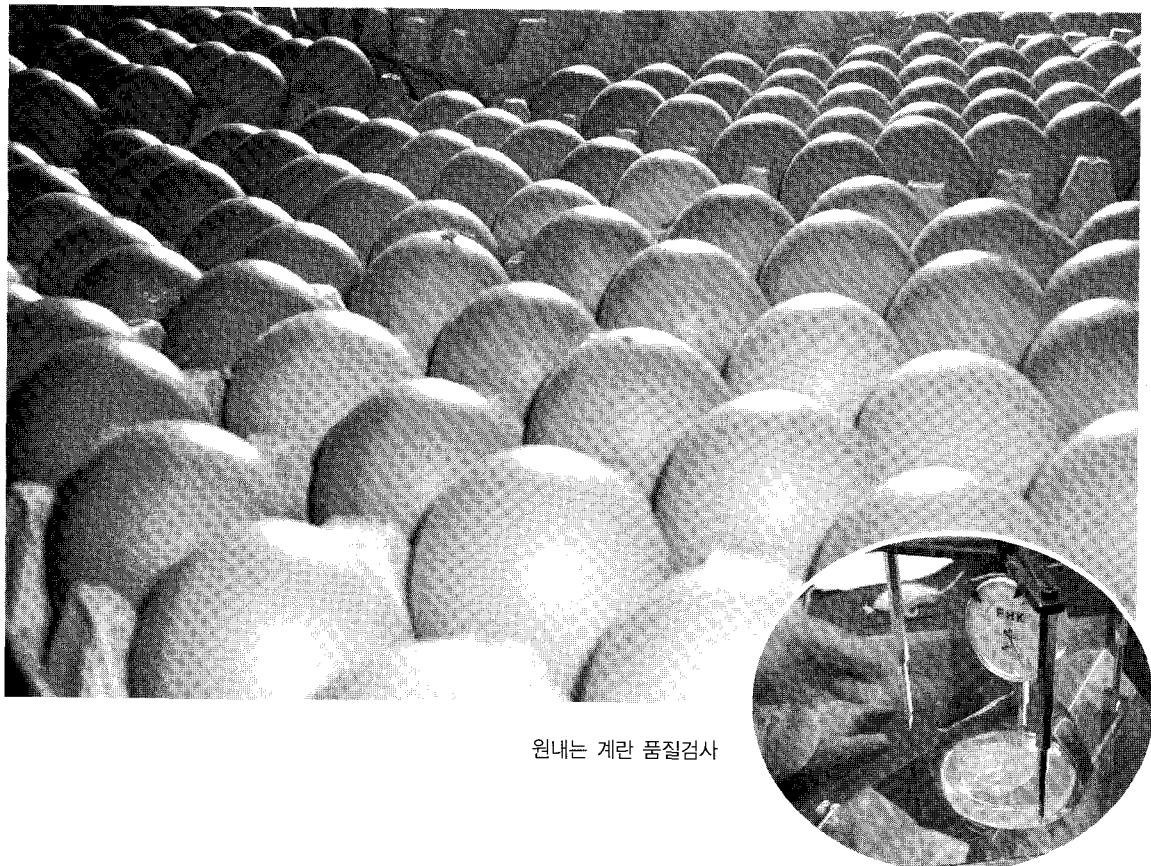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소비자들도 건강과 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각 국가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질병예방, 치료 및 사육을 위하여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발생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물 중 특히 닭고기, 계란 등의 양계산물은 인체의 생명 활동과 체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안전성이 확보된 양계산물의 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 증진과 약리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 혹은 특정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낮추는 등 특수 목적의 기능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계물의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가 바라는 닭고기 등의 양계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자, 정부, 소비자 등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985년 호주를 위시하여 최근까지 멕시코, 이태리, 홍콩, 네덜란드,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타이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3년 12월 15일 충북 음성의 한 종계장에서 발생하여 경기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7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2개월간 300여 농장에서 무려 500여만 수에 달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었고 양계업자의 직접적인 피해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요식 업계의 손실을 합치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병원성의 경우 법정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식품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만약 닭, 오리 등이 조류 독감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열하여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계란 내부로는 침투하지 않는다. 일상의 주방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위생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양계농가, 소비자, 정부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공기,

오염된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되나 철새의 이동, 국경무역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는 없다.

안전한 양계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 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생산자, 정부는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 2.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의 장래와 양계 산업의 발전 여부는 어느 국가가 먼저 위해요소를 중점관리 하여 보다 안전한 양계산물을 공급 하는가에 달려있다.

한 예로 미국은 1998. 1월부터, 일본은 2001. 4월부터 자국에 수출코자하는 제3국의 모든 식육작업장에 HACCP을 적용하여 식육을 생산도록 의무화 하는 등 선진 각국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양계산물의 생산도 이제는 항생물질 등 동물용약품의 안전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체에 각종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사료의 공급, 도계, 가공, 유통 및 소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자는 사육장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 동물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의 준수, 도계장의 위생시설 현대화, 포장 유통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1998년과 2003년 생닭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세균이 다수의 제품에서 검출되었지만, 위생적으로 포장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미생물의

재 오염 기회를 차단 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자는 시행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따를지라도 제품의 차별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 개혁과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는 전문성을 확보로 선진 외국의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생산자들을 지도하고, 자기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신속히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양계산물의 최종 선택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의 습득 및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는 상표화(브랜드) 및 품질인증 제품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고급양계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비록 가격면에서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과 위생·안전성면에서 우수하다면 국내 양계산물의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양계농가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양계산물의 유통개선 등 정부의 양계에 대한 주요정책과 이의 정책에 따른 생산자의 노력,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다면 양계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양계